



왼쪽부터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재덕 목사, 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준성 목사,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화 목사

뉴욕목사회, 25일 회장·부회장 선거 실시

회장 기호 1번 이준성 목사

부회장 기호 1번 김진화 목사

2번 이재덕 목사

뉴욕목사회는 11월 25일(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제48회 정기 총회를 열고 회장, 부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뉴욕목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6일 오전 10시 뉴욕베데스다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제48회기 뉴욕 목사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회장 후보 등록자 이준성 목사, 부회장 후보 등록자 김진화 목사와 이재덕 목사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 3 후보 모두 서류 심사에 통과됐다고 발표하고 각 후보의 기호를 확정 했다.

서류 심사에는 선관위원장 김

원기 목사, 선관위원 김기호, 박시훈, 심화자 목사가 참석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추첨을 통하여 회장 후보 이준성 목사 기호 1번, 부회장 후보 김진화 목사 기호 1번, 부회장 후보 이재덕 목사 기호 2번으로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세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 회견을 열어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현 상황에서 기자 회견을 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후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기자 회견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장 후보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는 “친목 위주의 행사를 통하여 즐거운 목사회, 세미나와 기도 운동을 통하여 배우는 목사회, 서로 섬기고 서로 성숙해지는 영적 향상의 목사회를 만들겠다”

고 출마 소견을 밝혔다.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화 목사(뉴욕미래비전교회)는 “행사를 줄이고 개인 교류 모임을 확대 하며, 뉴욕목사협의회와 자매 결연을 맺어 시와 주정부로부터 목사회원 베네핏을 공유하고, 시니어 목사들이 은퇴 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출마 소견을 밝혔다.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재덕 목사(뉴욕사랑의교회)는 “목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사회가 연합하여 복음 전도, 선교 사역, 2세 교육을 추진”하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출마 소견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8일(금)에 정기총회 공고와 후보자 확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